

KIA '소방수' 조상우 품었다...왕조재건 '속도'

키움에 10억·2026년 신인 지명권 2장 내주고 '불펜의 핵' 영입 구단 측 "1년 후 FA지만 내년 성적과 이후 전력까지 계산한 것"

'호랑이 군단'이 트레이드를 통해 마무리 출신 우완 조상우(30·사진)를 영입했다.

KIA 타이거즈가 19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KIA는 현금 10억원과 2026년 신인 1·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조상우를 품에 안았다.

대전고 출신의 조상우는 지난 2013년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넥센(현 키움) 유니폼을 입었으며, 프로 통산 9시즌 동안 343경기에 나와 419.1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3.11, 3승 25패 54홀드 88세이브를 기록했다.

프로 첫해 5경기에 출전했던 조상우는 2014년 48경기를 뛰면서 2.47의 평균자책점으로 6승 2패 11홀드를 올리면서 마운드 핵심으로 자리했다. 그리고 2015년과 2019년 프리미어 12 대표팀에서 활약했고,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2022-2023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그는 올 시즌 마운드에 복귀, 44경기에 나와 39.2이닝을 소화했다. 올 시즌 성적은 평균자책점 3.18, 1패 6세이브 9홀드.

KIA의 '조상우 영입설'은 시즌 내내 흘러나왔다. 선발진이 부상으로 4명이 동시에 이탈했고, 마무리 정해영도 어깨 통증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등 연이어 위기의 순간을 겪으면서 마운드 보강 방안으로 '조상우'가 언급되곤 했다.

KIA는 트레이드 없이 기존 자원으로 정규시즌 우승에 이어 통합우승까지 이뤘지만, '왕조재건' 목표를 앞두고 장현식 이탈이라는 변수를 맞았다.

올 시즌 불펜진에서 가장 많은 75.1이닝을 소화한 '마당쇠' 장현식이 FA(자유계약)를 통해 LG

트윈스로 이적하게 되면서, KIA는 '불펜 이닝'을 2025시즌 속제로 안게 됐다.

KIA는 장현식이 빠진 자리에 우완 유승철과 좌완 김기훈을 주목하고 있다. 두 선수 모두 특급 구위를 자랑하지만, 기록이 있었던 만큼 KIA는 검증된 마무리 출신으로 불펜의 힘을 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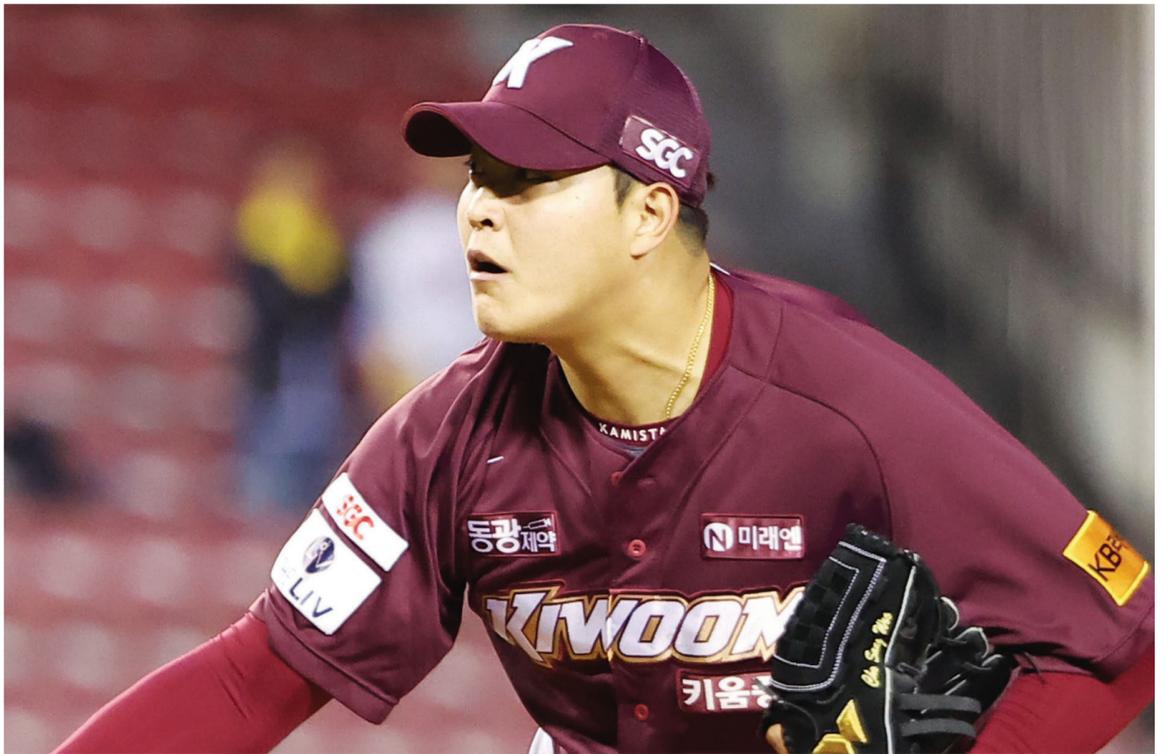
KIA 관계자는 "현장과 불펜 보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이번 트레이드를 추진했다"며 "조상우는 150km대의 빠른공과 예리한 슬라이더가 주무기이며, 스피리터,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겸비하고 있는 검증된 투수이다. 그동안 KBO리그 및 국제대회에서 필승조로 활약한 만큼 향후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트레이드 배경을 설명했다.

우려의 시선은 있다. 조상우는 내년 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얻는다. 1년을 위해 '미래'를 내줬다는 평가도 있지만 KIA는 '현재'를 통해 미래까지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KIA는 2009년과 2017년 우승을 이루고도 여운을 잊지 못했다. 앞선 실패를 교훈 삼은 KIA는 '왕조 재건'을 위해 2025시즌에도 우승 경쟁을 하겠다는 각오다. 그래서 KIA의 우승 동력이었던 불펜 지키기가 중요해졌다.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팀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대표 출신의 검증된 조상우의 가치는 더 크다.

KIA가 1위팀 자격으로 2026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늦게 지명권을 행사하는 만큼 '1라운드 지명권'에 대한 출혈도 적다.

신인드래프트 지명은 전년도 팀 순위 역순으로



KIA 타이거즈가 키움 히어로즈에 현금 10억원과 2026신인드래프트 1·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마무리 출신 조상우를 영입했다. /연합뉴스

이뤄진다. 이에 따라 KIA는 2026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늦게 10번째로 1라운드 선수를 호명하게 된다. 이어 2라운드 1순위(전체 11순위) 지명권을 행사한다.

10순위 카드를 트레이드에 사용했지만 바로 11

순위 선수를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명권 출혈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만약 조상우가 FA를 통해 1년만 뛰고 팀을 떠난다고 해도 밀지는 장사는 아니다.

조상우는 A등급이기 때문에 FA로 이적하면 연

봉 100%와 보호선수 20인 외 1명을 보상선수로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얻게 되는 만큼 KIA는 내년 시즌 성적과 이후 전력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4 FIFA 인터콘티넨털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 인터콘티넨털컵 초대 우승

멕시코 파추카에 3-0 완승

'유럽 클럽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가 '북중미 클럽 챔피언' 파추카(멕시코)를 꺾고 2024 국제축구연맹(FIFA) 인터콘티넨털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파추카와의 대회 결승에서 3-0으로 대승을 거뒀다.

FIFA 인터콘티넨털컵은 6개 대륙 '클럽 챔피언' 간 대항전으로 이번이 첫 대회다.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를 필두로 2023-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인 알 아인(UAE), 2024 오세아니아축구연맹(OFC)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차지한 오克蘭드 시티(뉴질

랜드), 2023-2024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알아흘리(이집트), 2024 북중미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인 파추카, 2024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챔피언인 보타포구(브라질) 6개 팀이 경쟁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하위 라운드 없이 결승에 직행한 가운데 2라운드부터 경쟁한 파추카가 지난 15일 알아흘리를 꺾고 결승에 올라 이날 맞대결이 치러졌다.

결과는 레알 마드리드의 압승이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37분 페넬티 지역 왼쪽 구석으로 파고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골키퍼마저 따돌리고 컷백을 내주자 킬리안 음바페가 골대 정면에서 왼발로 득점에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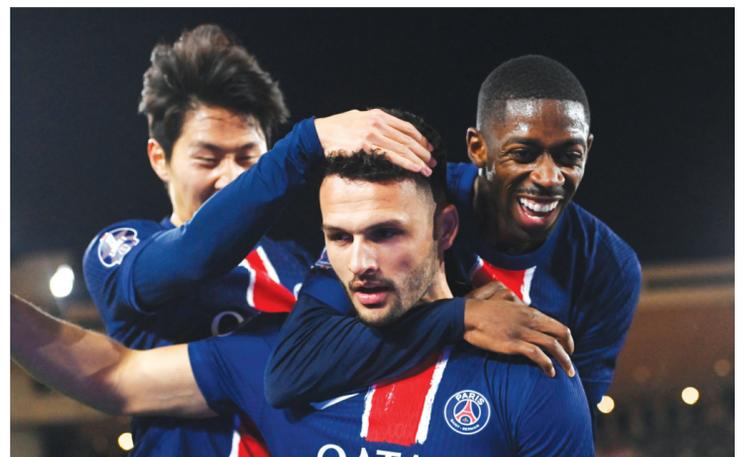
전반을 1-0으로 마친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8분 호두리구가 페넬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오른발 슈팅

으로 추가골을 넣었고, 후반 39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페넬티킥으로 쐐기골을 박고 승리를 마무리했다.

전날 '2024 FIFA 올해의 남자 선수' 뽑힌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이날 1골 1도움의 맹활약으로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골든볼도 수상하는 기쁨을 맛봤다.

더불어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고 15번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해 미겔 무뇨스 감독(1960-1974년·14차례 우승)을 제치고 역대 레알 마드리드 최다 우승 사령탑이 됐다.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고 UEFA 챔피언스리그 3회, 라리가 2회, 코파델레이(국왕컵) 2회, 스페인 슈퍼컵 2회, UEFA 슈퍼컵 3회, 클럽월드컵 2회, 인터콘티넨털컵 1회 등 총 15개의 우승 트로피를 모았다. /연합뉴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왼쪽)이 19일 모나코의 스타드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허무스(가운데)의 골을 도운 뒤 댐벨레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체 투입 이강인, 역전 결승골 도움

PSG, AS모나코에 4-2 승

교체로 출전한 이강인이 소속팀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의 역전 결승골을 도와 팀 승리에 앞장섰다.

PSG는 19일 모나코의 스타드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AS모나코를 4-2로 물리쳤다.

리그 선두 PSG(승점 40)는 12승 4무를 쌓았고 개막 16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AS모나코(승점 30)는 리그 3위에서 제자리 걸음 했다.

이날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이강인은 2-2로 팽팽히 맞선 후반 20분 브래들리 바르클라 대신 투입됐다.

오른쪽 측면을 누비던 이강인은 곤살루 하무스와 역전 결승골을 합작해 팀 승리에 기여했다.

후반 38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이강인이 문전으로 날카롭게 공을 올렸고, 문전에서 뛰어 오른 하무스의 머리에 정확히 배송됐다. 하무스의 헤더가 골대를 가르면서 PSG가 리드를 가져왔고, 이강인은 리그 2호 도움을 올렸다.

이강인의 올 시즌 공격포인트는 6골 2도움이 됐다.

이강인은 후반 추가 시간엔 우산 댐벨레가 뒤로 흘러준 공을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직접 골

문을 노렸다. 이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나와 아쉬움을 남겼다.

PSG는 전반 4분 아슈라프 하킴이 오른쪽 슈팅으로 골대를 때리며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 17분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모나코의 윌프리드 싱고의 발에 오른쪽 뺨을 정통으로 가격당해 출혈을 보인 뒤 마르베이 사포노프가 급하게 투입되는 돌발 상황을 맞았다.

약 5분 동안 경기가 중단된 가운데 피부를 응급봉합한 돈나룸마는 스스로 걸어서 그라운드를 나갔다.

PSG는 경기가 재개된 직후인 전반 24분 데지레 두에의 선제 골로 앞서 나갔다.

아슈라프 하킴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컷백으로 연결했고, 쇄도한 두에가 골대 정면에서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PSG는 후반 8분 벤 세기트에게 페넬티킥을 내줘 동점이 됐다.

이어 후반 15분엔 브렐 엠블로에게 문전 오른발 슈팅을 허용해 역전당했다.

PSG는 후반 19분 파비안 루이스의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나오자 문전에 자리 잡은 댐벨레가 세컨드 볼을 놓치지 않고 가볍게 밀어 넣어서 2-2로 균형을 맞췄다.

PSG는 후반 38분 이강인의 도움에 이은 하무스의 결승 헤더로 승부를 갈랐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댐벨레가 오른발 쐐기포로 멀티 골을 작성하며 승점 3을 챙겼다. /연합뉴스